



2020년 6월 21일(제987호) 연중 제1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두려움에 맞서는 힘,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으나 주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예언자’로 불릴 만큼 예언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번민과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조국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겪게 될 쓰라린 미래를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고 투옥되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식만 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참 신앙의 길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온갖 어려움과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두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친 경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 경우, 자기만족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누군가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느님께 불평불만만을 토로하고 탄식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구조 악과 더불어 권력과 경제력을 등에 업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인간에게서 나온 거짓과 탐욕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 그 무엇으로도 주님께서 지으신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고통과 불의 앞에 두 가지 자세를 함께 지녔으면 합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그 두려움을 이기고도 나를 사랑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어 나의 고통 중에도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사랑의 힘을 믿고 내 영혼을 어찌지 못하는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과 악의 세력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1요한 4,18)



박희진(요셉) 신부  
이기지(27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예레 20,10-13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제 2 특 시      로마 5,12-15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복            음      마태 10,26-33
- 영 성 제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최봉한 프란치스코



성인명: 최봉한 프란치스코 (崔奉漢 Francis)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785?-1815년

‘여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최봉한(崔奉漢)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홍주 다래골(현,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진강’이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신앙생활을 하였다. 1815~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서석봉 안드레아와 구성열 바르바라 부부는 그의 장인과 장모였다.

최 프란치스코는 공주 무성산으로 이주해 살던 중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친과 누이와 함께 상경하였다. 그의 부친은 이 무렵에 사망하였다.

한양으로 올라간 최 프란치스코는 주 야고보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집에 살면서 향사영 알렉시오, 최필공 토마스 등과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가운데 모친이 사망하자, 그는 누이를 정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자신은 시골로 내려갔다. 이때 그는 동정을 지키며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들의 권유로 마음을 바꾸어 서석봉 안드레아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

최 프란치스코는 가족을 데리고 장인 부부와 함께 경상도 청송의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을 찾아가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에 1815년 예수 부활 대축일, 밀고자를 앞세우고 노래산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체포될 당시에 그는 동료들에게 ‘문초를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에 뒤집어씌우라.’고 하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만 하였다.

경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최 프란치스코는 장모인 구 바르바라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는 끊임없이 그녀를 권면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형벌 가운데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깨끗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대구로 이송된 최 프란치스코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정신을 잃기도 하였으나, 그의 열심과 용기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형벌을 이겨 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가 갓 넘었다. 또 그가 순교한 시기는 1815년 음력 5월경이었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현실이 참혹하고  
울 미래의 공포가  
나를 잡아먹으려  
밀려올 때,

함께 했던 시간으로  
떠나본다.

다시 울 그날을 그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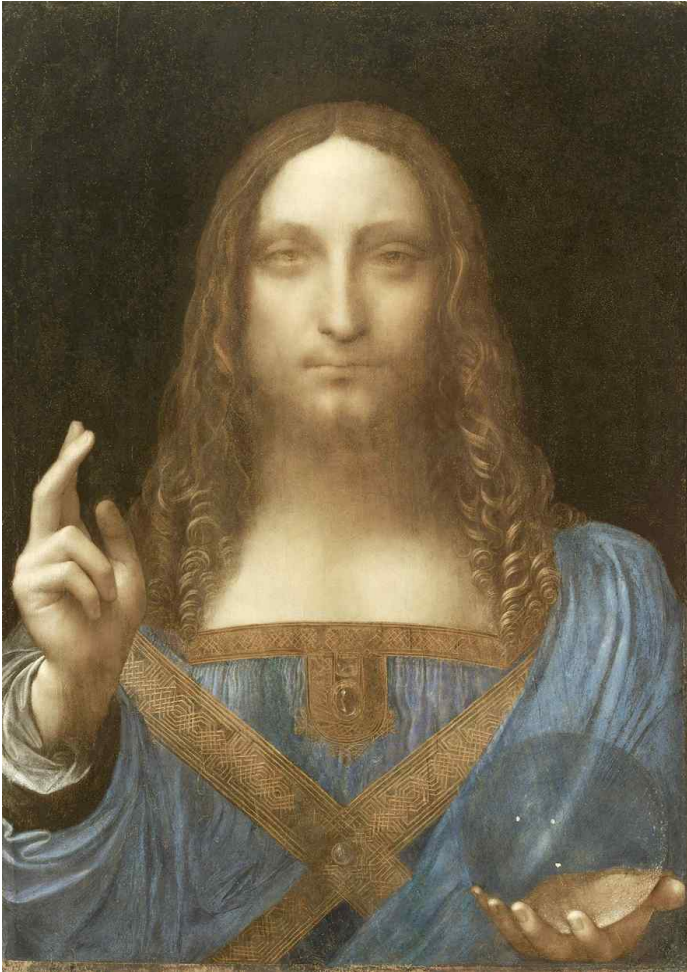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님과

나를 삼키려는 두려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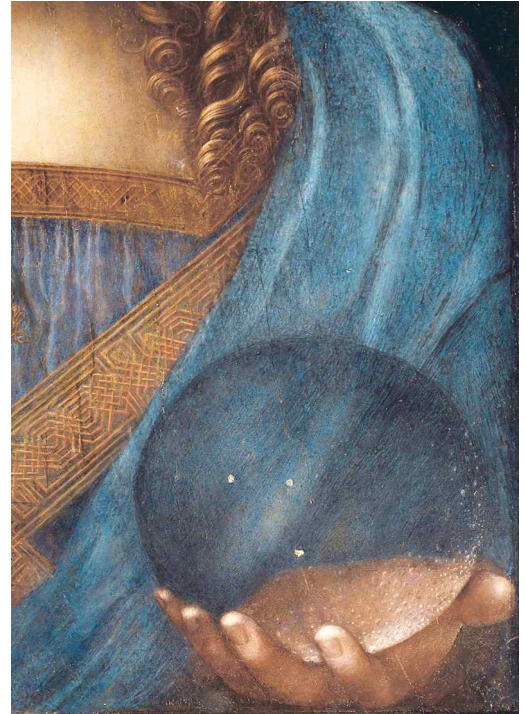


상화이야기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며, 왼손에는 온 세상(전 우주)을 상징하는 투명한 유리구를 들고 계신다. 우리에게 다빈치는 과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투명한 크리스털 구슬을 통과하면, 이미지가 뒤집어져서 보인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500년경 제작  
나무 위 유화, 45.4×65.6cm / 개인소장(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세부도

특히 크리스털 유리구슬을 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기방울까지 그대로 세밀하게 그려냈는데, 구슬을 통해 보이는 예수님의 손바닥과 옷을 굴절 없이 그대로 그려냈다는 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종교와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미술사학자들은 말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내기 미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미련이다.” (마태 10,26)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2주일: 은성대 김경옥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6월 21일(주일) 11:00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0년 상임위원회의  
    때·곳: 6월 22일(월) 15:00, 군중교구청

- 전역축하식  
    때·곳: 6월 23일(화) 11:00, 자운대 성당
- 2020년 군중신부 임관축하미사  
    때·곳: 6월 24일(수) 19:00, 남성대 성당  
    ※ 전역축하식과 임관축하미사는 외부인 참석 불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